과거상흔 씻지못한 日帝文化 침투

—— 굴욕적 외교로 인한 일본 영화 수입을 반대한다

자주성 유린과 저질문화 양산 우려
민중 정서 대변할 민족영화 활성화 돼야

I. 재일교포와 일본영화

일본영화수입문제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있다. 한데 이번에는 대통령의 굴욕적인 일본방문과 일본 천황의 방한초청을 둘러싸고, 재일동포법적지위개선보장이란 조건과 맞바꾸는 기묘한 형태로 고개를 들고 있다.

사실 한·일정권의 일본영화수입기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본은 이른바 국교정상화이후 줄기차게 영화상륙(?)을 시도해왔다. 그무슨 '한일친선협회', '한일의원연맹'기타 무슨무슨협의회, 무슨교류단체 등을 통해 끊임없이 영화수입을 강요하였다. 그때마다 민족감정으로 말미암아 좌절되었다. 한데 최근의 사태는 아주 구체적이다. 구체적으로 일본영화가 들어올 조짐이다. 이것은 대체로 88년 3월 동구권영화수입을 허용하면서 시작되었다. 즉 정부는 동구권영화뒤에 일본영화라는 밀수품(?)을 감추고 있었던 셈이다. 그리고는 한·일 합작영화제작이 영화계의 일본통들에 의해 개시되었고, 명백히 일본영화인 중·일합작 영화수입이 추진되었다.

그리고 지금 재일동포의 법적지위개선에 관해 부분양보를 받아내는 조건으로 일본영화수입을 허용할 방침임이 폭로되었다. 정부는 부인하고 있으나 이를 아무도 믿지 않는다.

'지난 3월 16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문화교류실무자회의에서

각 개인, 대중단체등의 반대운동 통해 정치적 체결 모색해야 한다

일본쪽의 요구에 따라 양국 영화의 각도시 순회상영, 영화인들의 교환심포지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일영화제의 개최'에 정부가 잠정합의하였다. (한겨레신문, 4월17일, 홍기선)

또한 교류와 문화를 앞세우며 정치인, 정책담당자, 영화인들이 일본으로 몰려가 현지집행관(?) 훈련을 받고 있다고도 한다.

뿐만 아니라, 수입금지된 일본 극영화비디오의 '후레쉬 맨'이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문공부 허가를 받아 어린이들 사이에 폭발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이런 모든 사정들이 일본영화 수입이 조만간 현실화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고 있다.

한데 재일교포법적지위개선과 일본영화 수입의 바꿔치기 속에 실은 이 문제의 본말에 담겨있다.

II. 일본 영화수입의 본질

재일교포가 누군가? 그들은 일제 식민지 학정의 가장 큰 피해자들이다. 징용으로 징병으로 노무대로 싼 임금의 노동자로 일본에 끌려가고 어쩔수없이 종전후에도 일본땅에 남은 우리민족의 일원이다. 그들이 당한 학대와 수치와 모욕은 날이갈수록 생생하게 폭로되면서 제국주의 일본 그리고 아직도 그 탈을 완전히 벗지못한 오늘의 일본의 야만성과 편협성을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정부는 여태껏 그들, 우리동포에 대해 단한번도 민족적 애정을 갖고 배려를 한 적이 없다. 항상 남북간의 선전전에 이용해 왔고 항상 일본과의 협상에 활용하여 왔다. 이번에도 그 꼴이다. 도대체 일본영화가 얼마나 가치있는 것이기에 이를 담보로 재일교포법적지위 문제를 협상하는가!

일본영화수입은 일제의 수입이다. 그래서는 안되는 것이다. 종전후 45년동안 일본은 단 한번도 의례적인 사과도 없었다. 의례적인 사과가 중요한게 아니라 진정참회, 반성하고 실질적인 관계속에서 참회와 반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하튼 의례적인 사과도 없었다. 다시말하면 일본측은 남한에 대해 실질적인 식민지의식을 버리지 않고 있는 셈이다. 또한 굴욕적인 국교정상화(?)이후 이땅의 역대정권이 보여온 대일예속성은 적어도 정권의 차원에서 황국신민으로 계속 남아 있었다는 의미에 다름아니다. 그렇기때문에 일본영화의 수입은 일본제국주의의 망령을 수입하는 것이다. 그들은 당당하게 과거 식민의 땅에 제국주의 망령과 일본 자본주의의 가장 퇴폐적 반영물인 영화의 깃발을 꽂으려 하는 것이다.

사실, 일본영화는 그 의미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군국주의, 폭력, 성도락, 퇴폐, 염세적 세계관으로 가득차 있다. 일본영화에도 진보적 민중적 영화가 있다. 문화적으로 가치있는 영화들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영화들이 수입되는 것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민족적 굴욕관계와 그들의 진정한 참회와 사죄없이는 일본영화수입에 대한 모든 논의는 반민족적 반민중적일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들의 영화가 우리민중의 민족적 자주성을 유린하고 감정과 생활문화를 장악하는 것을 도저히 허용해서는 안된다.

III. 왜 일본 영화수입은 막아야하는가

일본영화수입이 곧 일제의 수입이라고 하였다. 이 전제를 안고 왜 일본영화 수입을 막아야 하는지를 생각해보자.

첫째, 일본영화수입은 필연적으로 일본가요, 일본방송프로그램, 일본영화자본등 전반적인 문화체계의 유입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을 일본측은 노리고 있다. 이미 파라볼라 안테나라는 거대한 송유관을 통해 일본의 모든 것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다. 전국의 만화방, 다방, 여관, 가정의 비디오에 일본의 가장 썩어빠진 영화들이 미친듯이 돌아가고 있다. 영화수입은 이런 현상을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촉진하고 확장하는 변수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입을 막아야 한다.

둘째, 일본영화의 수입은 필연적으로 한국영화의 붕괴를 가져온다. 우리 영화산업과 시장의 식민지적 성격은 익히 알려진대로지만, 미국영화직배에 의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여기에 일본영화가 뛰어든다는 것은 다리없는 병신한테 팔까지 잘라버리는 것과 똑같은 현상을 초래한다. 이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면 목전에 닥친 일본영화 수입을 어떻게 막아 낼 것인가. 그 방안은 무엇인가? 솔직히 우리는 이에 대한 자신있는 방안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하지만 원칙은 있다.

문제의 근원 자체가 고도로 정치적인 문제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곧 대일예속성이 청산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곧 민중에 기초한 자주적인 정권을 창출하는 과정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 그렇다 하지라도 각급의 대중단체, 시민자구모임, 민족적인 영화인 등이 이 문제에 통일된 입장을 세우고 반대운동에 나서야 한다.

또한, 일본영화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안으로써 진실로 민족민중의 입장을 대변하는 영화를 창작함으로써 우리관객의 감수성을 우리가 장악해야 한다.

이런 방법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실천되어 나갈 때, 일본영화는 거대한 우리 민중의 벽앞에 무릎을 꿇고 말 것이다.

이 정 하
〈한겨레 영화 제작사 대표〉

반쪽세상, 참된노동자의 자화상

▶서평◀ 노동자 김미영의 투쟁수기 '마침내…'

노동자 입장서 제사회문제 정확히 조명
개인삶 넘어 전민중 앞길에 문제제기

최근의 문학논의 주안점은 문예통일전선과 전형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보수야합과 때를 같이하여 몰아닥치고 있던 광풍이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민중들의 투쟁의 결과 어느정도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세역전을 확실한 고양으로 전환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전체운동의 부문운동으로서의 문학운동 역할이 무엇보다도 긴급하게 제출되고 있는 상황인식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일부 문학론자들의 입에서 문학의 전진성을 약화시킬 수 도 있는 심각한 우편향적 오류가 발견되고 있는 현실 또는 문학운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될 과제이다.

물론 문학은 형상이라는 옷을 입어야 하고 모든 문학작품 역시 일정하게 자신의 문학적 구도를 획득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의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 측면에는 노동자계급의 문학적 현실주의에 대한 일정한 인식적 미달현상이나 전선의 문제를 자신의 임무로 하지 않으려는 교묘한 문학주의가 도사리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노동문학 혹은 노동해방문학이 80년대를 경과하는 동안 엄청난 이론적인 발전과 창작적 성과를 이룩했음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문학적 성과가 반드시 옳바른 것이었다고 자부하기에는 경향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방현석의 '새벽출정'이나 정화진의 '씻물처럼'이 노동과정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묘사를 이룩했고 노동자의 입장에서서 사물을 판단하려고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 문학작품이 수용하고 있는 주제의식에는 일정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전망의 부재와 조합주의적 경향성에서 찾아진다.

전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현실운동의 발전법칙과 그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 주는 것을 의미하며, 더군다나 투쟁기에 있는 혁명문학의 경우에는 매시기 마다의 임무가지도 포괄하는 것이 바로 전망이다. 노동자계급해방과 인간해방에 대한 역사법칙의 필연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면서 노동자계급과 민중을 투쟁의 대열에 참가하도록 이끄는것, 그리고 노동자계급에게 형상적 언어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과학적 언어를 사용해서라도 그들의 계급의식의 발전가능치를 최대화 시킬 것이 현시기 전망이라는 말에 부합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문학적 형상화라는 말로 노동자계급의 의식적 발전을 저해하거나 형상화를 이유로 문학에서 사상성을 평가절하하려는 태도에는 명백하게 반대한다.

우리는 이점에서 김미영의 수기 '마침내 전선에 서다'(노동문학사, 1990)를 높이 평가한다.

'마침내 전선에 서다'는 90년대의 인식과 맞물려 있다. 그것은 백무산의 '동트는 미포만의 새벽을 딛고'와 박노해의 최근 시작업과 동궤의 인식이며 크게는 89-90년 현대중공업, 남한 노동자계급의 인식과 일치한다. 모든것을 계급의 입장에서 파악한다는 것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급의 이익에 복무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으며 그것과 전 민중과의 관계는 이러저러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구체적 실현방도를 찾아 조직적으로 실천하는 것, 우리는 이러한 인식과 실천을 90년대적 남한노동자계급의 인식이라고 부른다.

필자 김미영은 대부분의 남한 노동자계급이 그러하듯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농민출신의 노동자이다. '집안의 일거리가 너무 많아 허리가 휘어진다해도 데비뚝 너머 우리땅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생각하며 밀개떡을 싸들고도 새보기를 마다하는 친구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녀에게는 학업이란 이미 사치한 것으로 다가온다. 결국 그녀의 집안은 서울로 이주를 하였고 더불어 그녀는 농민에서 노동자의 신분으로 된다.

14살에 봉제공장의 시다로 입사하였다는 점, 못다한 학업을 다하기 위하여 야학의 문를 두드려 보았다는 범, 밥먹듯한 야근과 철야가 정말로 무섭다는 사실, 그리고 몇번의 공장이동과더불어 그 수 만큼의 임금체불과 떼먹힘을 당했다는 점은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현실이다.

그러나 김미영의 생활은 그가 성문밖교회에서 노동자가 무엇이며 그들이 어떠한 일을 이 사회에서 맡고 있는지를 어렴풋하게나마 안 뒤로는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된다. 몇번의 좌절과 실의를 거치며 그녀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다. "제가 남을 위해 이 한목숨 희생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싸우지 않으면 않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 앞에 많은 어려움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저는 진짜노동자가 되기위하여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강고해져 훌륭한 노동운동자가 되겠습니다" 이때가 1985년 6월이었으니 그녀가 만 20세를 채 넘기기도 전에 내린 결론인 것이다.

이후 구로연대투쟁, 모세미용실 점거투쟁, 박영진 열사의 장례식으로 백여일간의 옥고, 서노련 출동, 6월 민주화 투쟁과 노동자대투쟁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백기완 대통령후보 선거운동본부, 민중의 당, 노동해방주의자로서 다시서기 위한 3백여일간의 지옥훈련과 필수실천, 전조직적 재정확보투쟁을 통하여 그녀의 인식과 실천은 눈이 부시게 발전을 한다. 노동해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노동운동을 하겠다고 뛰어들고는 과학적 변혁이론과 변혁사회의 상에 대해서 갈망해야만했던 과거도 있었고, 한번의 사소한 실수가 단번에 조직을 와해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에 몸을 떨었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노동해방주의자로 새롭게 태어나 남한노동자계급과 전세계 노동자계급의 인간해방을 스스로 온몸에 떠안고자 출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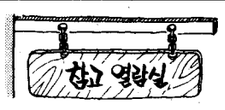
우리는 이 수기를 통해서 전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의 고유한 모순이 어떻게 한 인간을 질곡에 빠뜨리는가를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모순의 극복이 어떤 계급의 이름하에 이루어져야하는 지에 대해서도 잘 살필 수 있었다. 더불어 이는 단순히 한 인간의 개인사만이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남한 민중의 앞길과 직결된 문제이면서 동시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문제임도 알 수 있었다. 그러기에 후기에서 밝힌 다음과 같은 김미영의 말은 곧 우리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

"저의 수기는 일단 여기서 매듭짓지만 노동해방투사로서의 저의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수기가 노동해방투쟁의 불길을 돋우는 작은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면 노동자계급의 해방투쟁에 바쳐지는 헌사가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최고입니다. 마침내 저선에 서서 새사회 건설을 위해 휘두르는 투쟁의 망치소리로 저는 이 아침을 맞이합니다. 이 소리는 노동자계급만이, 노동해방을 열망하는 자들만이 들을 수 있는 생명의 합창인 것입니다. 동지들! 자, 이제 진군입니다. 이제 전 동지가 찬란한 노동해방의 기치를 들고 전선으로 노동해방투쟁정선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임 효 천
〈문학평론가〉

메타픽션

자의식 중시한 소설기법



20세기 후반에 접어 들면서 프랑스에서는 알랭 로비-그릴레 등에 의한 nouveau roman(누보로망)이 남미에서는 마술적 사실주의 기법을 수용한 가브리엘 가르시 마르께스와 허구의 세계를 창조하는 상상력의 기법을 도입한 홀헤 루이스 보르헤스에 의한 새로운 소설이 등장했다. 그리고 이들과 같은 맥락에서 사뮤엘 베켈, 존 화울즈, 및 존 바스, 토마스 핀천, 커트 보네걸 등을 포함한 영미 소설가들은 전통적 리얼리즘과 모더니즘문학을 거부하면서 새로운 소설형식을 시도했다. 특히 소설구성에 강한 자의식을 나타내는-소설작법을 다루는-소설을 metafiction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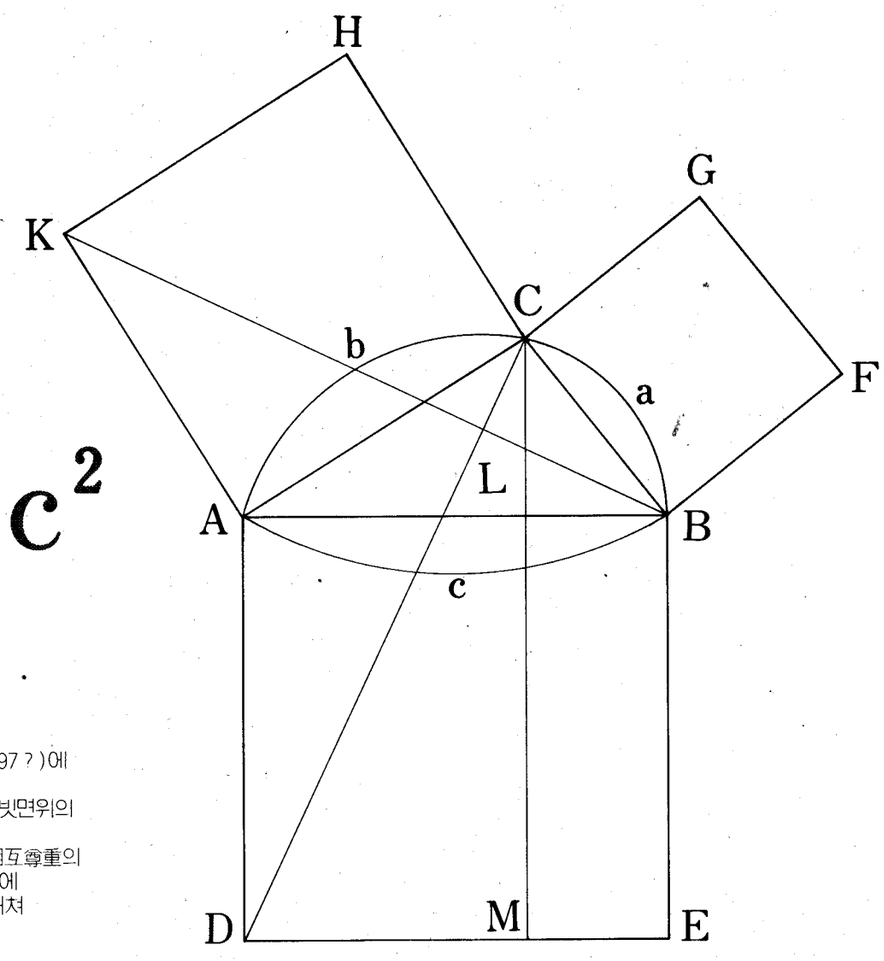
metafiction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미국작가·비평가인 William Gass이며, 접두어 'meta'는 '~을 고려하는'이란 뜻이다. 따라서 소설(novel이라 하지 않고 fiction이라 함)에 관한 소설, 아니면 소설의 기법을 다루는 자아의식적 소설이란 뜻이다. 따라서 metafiction의 특징으로서, 서술행위, 양식 및 언어에 대한 자아의식, 상상력의 찬양, 그리고 풍자적이며 유희적인 문체를 들 수 있다.

이들 작가들은 종래의 사실주의와 모더니즘의 기본개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방론과 전통적 형이상학 및 신학과 역사에 대한 절대적 가치관을 거부하면서 하이젠버그의 불확실성의 이론, 소슈르의 언어이론을 거쳐 데리다의 해체이론에 이르는 현대지식의 발전과 더불어 변화된 오늘의 상황에 맞는 소설의 내용과 형식을 찾고 있다. 특히 현실에 대한 지식은 언어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으로 본다면, 소설은 언어의 세계이기 때문에 실재(reality)가 구성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모델이 된다는 것이다. metafiction의 기초가 되는 유희의 개념에 따라 의미와 실재를 구성하는 텍스트는 결정적 상황이 아니라 유동적이며 개방적인 것임을 고려할 때, 역사와 실재는 모두 잠정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metafiction은 현실과 허구와의 관계, 나아가서는 현실의 허구성(fictionacity)까지 다루는 소설이라 하겠다.

비록 기존의 질서와 가치를 무시한다는 비난도 받지만, metafiction은 단순히 상상력을 통한 자기도취적인 패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원적인 현대문화적 특성에 맞는 서술형식을 찾는 노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박 엽 〈고려대 교수·영문학〉

HYUNDAI
우리의 現代 세계의 現代



$$a^2+b^2=c^2$$

■ 피타고라스의 定理
고대 그리스의 피타고라스(Pythagoras, BC 582?~497?)에 의해 처음으로 증명된 수학의 定理로 〈직각삼각형의 직각을 포함하는 두변위의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빗면위의 정사각형의 넓이와 같다〉는 것이다.
피타고라스와 그의 제자들이 創意와 理解 그리고 相互尊重의 精神으로 이룩한 피타고라스의 定理는 수학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으며 후일 플라톤, 유클리드를 거쳐 현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學問의 根源은
個性과 創意와 理解, 그리고
相互尊重의 精神입니다.

歲月이 흘러도, 世代가 變해도 學問에 대한 眞理는 變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個性과 創意性을 기르는 것이 學問探究의 基本이며 거기에 相互, 個性의 尊重과 理解의 姿勢를 더할때 學問은 더욱 成熟하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는 이 넓은 社會를 보다 밝고 즐겁게 만들기 위해 모두의 힘과 創意力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現代